

중국 근대 서양교육의 수용

— 명칭과 인물을 중심으로*

李庚子**

<목 차>

1. 머리말
2. '교육'에 대한 명칭의 수용
3. 중국인을 통한 서양교육의 수용
4. 외국인을 통한 서양교육의 수용
5. 맺음말: 수용의 의미

1. 머리말

1300여 년 동안 지속된 과거제도가 1905년에 폐지되고, 중국은 서구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제도를 수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1905년 이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1905년은 전통적으로 시행되었던 제도와 의 결별을 고한 시점이다. 전통적 교육 시스템의 종말을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전개를 인정한 시기이기에 중국 교육사에서 중요하다.

1905년 이후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전통 교육의 흔적이나, 중국적 교육 시스템의 맥아를 찾아보기 힘들다. 천년이 넘게 진행된 교육과 그에 따른 문화가 사라지고, 그 곳에 이질적인 교육시스템이 이식되어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1026982).

**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의 교육제도가 그만큼 가치 있는 제도로서, 서양의 시스템이지만 지역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¹⁾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단순히 교육 제도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랫동안 중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풍습과 전통의 변화를 야기하고, 전통과의 단절을 비롯하여 자기 부정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변화를 통한 '확대재생산'과 '고착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과거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 이념에서 중국특색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서는 이념을 확립하고 있고, 정치체제에서는 대통령제나 입헌군주제도 아닌 집단지도체제와 같은 자신만의 정치 체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서양 언론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면, 중국에겐 중국의 정치 방식이 있다하며 자신들의 잣대로 중국을 판단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지금 중국은 중국의 방식에 따른 정치와 경제를 구현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서양이 만든 게임의 룰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룰을 만들어 게임에 임하겠다는 자세이다.²⁾

그럼, 교육에서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신호가 나타날 것인지 그 귀추를 기대하게 된다. 고대 중국은 漢武帝의 선택과 隋代의 유교경전 중심의 과거제도 시행에 의해 유교의 가치와 사상은 확대재생산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중국을 지배하고 다스렸다. 중국 역사에 미루어볼 때, 이러한 시간의 무게와 흐름을 깨트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정치와 경제에 이어 중국의 교육에서도 중국적 교육 방식이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진행되어

1) 수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2010년 OECD 국가에서는 세계 60여 개 국가 및 지역 15세 학생의 학업능력에 대해 PISA 평가(국제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고, 중국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유럽과 미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은 이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텐젠귀 저, 송홍령 옮김, 《중국교육, 세계를 겨냥하다》(서울: 타래, 2015), 126-127쪽.

2) 金德三·李庚子, <失去的近代性與傳統的重建: 以中國近代教育的變化為中心>, 《中國研究》 72卷(고려대학교 중국연구소, 2017), 100-101쪽.

야 중국이 선진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서 구의 교육이 어떻게 전파되고, 자리매김하였는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게다가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같은 문화권의 국가에도 비교연구로서 가치가 크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근대는 전통과 현대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교육에서 오랜 기간 사회 문화의 재생산과 발전을 이끌었던 교육의 체제와 내용이 변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일어난 근대 교육의 변화, 그 중에서도 서양교육의 수용은 서양과 일본의 교육사상과 제도 등을 수용하면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근대 교육과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근대를 상징하는 ‘교육’에 대한 명칭의 수용 과정 연구이다. 둘째, 서양교육이 중국에 수용된 과정을 중국인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연구이다. 끝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 이루어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2. ‘교육’에 대한 명칭의 수용

‘교육’이라는 명칭은 《孟子·盡心上》에 “천하에 영재를 얻어 그를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에서³⁾ 처음으로 발견된다. 맹자가 사용한 교육이란 단어에는 ‘가르치다, 깨우치다[教誨]’, ‘양성하다, 육성하다[培育]’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근대교육에서 말하는 ‘교육(education)’의 의미와 조금 다르다. 다만 ‘教’와 ‘育’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를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후 ‘교육’이라는 용어는 西學이 동양으로 들어오던 시기에 서양의 근대교육 개념으로 수용되면서 주요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名’과 ‘實’이라는 두 계층이 성립되었다. 하나는 ‘education’에 대한 역명이 확립되었

3) 《孟子·盡心上》: 得天下英才而教育之, 三樂也.

고, 둘째, 교육의 하위개념으로 삼육이 도입되었다.⁴⁾

그렇다면 중국 근대 교육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이라는 번역명이 어떻게 중국에서 성립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적 의미의 ‘교육’은 영어로 ‘education’이다. 이에 상응하는 불어는 éducation 독일어는 Erziehung이다. 이것은 모두 라틴어의 Educare에 기원하며, 의미는 導出, 引出에서 養育, 教授 등의 의미로 외연이 넓어졌다. 청말에 이르러 서구의 학문이 동양에 전파되면서 education은 다양한 한역명으로 번역되었다. 그중 한자어의 教育은 최종적으로 기본적인 번역명으로 확정되었으며, 더불어 교육학의 핵심어가 되었다.⁵⁾ ‘교육’이라는 용어 외에 history ‘역사’, religion ‘종교’도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뒤 중국과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당시 일본으로 유학을 간 학자들에 의해 소개 번역되었다. 이것은 추후 한, 중, 일 삼국간 근대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중국에 온 선교사가 편찬한 영한사전 중에서의 education 및 이와 관련된 영문단어의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4) 聶長順, <“教育”的近代化>, 《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期(武漢: 湖北大學, 2009), 13쪽.

5) 聶長順, 앞의 논문, 13쪽.

6) 聶長順, 앞의 논문, 13쪽의 표를 재정리함.

사전명	저자명	Education 및 관련영어의 역명	년도
華英字典	馬禮遜	<u>EDUCATION</u> , 教學 Education of youth, 教順幼少	1822
英華韻府歷階	衛三畏	Educate, 教訓 <u>Education</u> , 教學 Educate(to bring up) 養育, 教養, 育(to teach), 教, 教訓, 掌教, 教導, 教誨, 教化, 開化, 開導, 教習	1844
英華字典	羅存德	Educating(instructing), 教養, 教育, 養育 <u>Education</u> (the bringing up, as of child) 養者, 育者:(instruction), 教者, 教訓, 教學:(<u>the course of education</u>), 教之道(the education discipline), 教法(the education of children), 子女之教訓, 子女之教育	1866 - 1869
英華萃林韻府	盧公明	Educate, 教訓, 教養, 讀書, 教示 Educated., 受教的, 讀書的, mind, 廣識狀氣 <u>Education</u> , 教學, 教導, youth of 教訓幼少	1872

*education에 대한 밑줄 친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표시함.

위의 표에서 보면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馬禮遜이 1822년에 편찬한 《華英字典》에 education이 '教學'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이후 衛三畏, 羅存德, 盧公明 등이 편찬한 사전에도 모두 education이 '教學'이라는 이름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이라는 용어는 羅存德의 《英華字典》에서 'The education of children'을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번역한 것에서 볼 수 있다. 聶長順은 여기서의 교육은 중국의 고전에서 보이는 '教育'과는 다른 것으로 근대 교육의 핵심어로 쓰인 것은 일본의 明治維新 확립과 더불어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 후, 중국에 서학이 들어오던 시기에 일본을 통해 중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⁷⁾

중국 교육관련 학술지를 살펴보면 중국 최초의 교육잡지로 1901년 羅振玉 등이 공동 출판한 <教育世界>가 있다. 이 잡지에서는 서양의 다양한 교육제도와 교육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잡지는 서양의 교육학설을 중국에 소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王國維는 이 잡지에 많은 글을 게재하였다. 그는 이 잡지의 9-10호에 처음으로 일본학자 立花鐵三郎(1867-1901, 메이지 시대의 교육학자)이 지은 《교육학》이라는 저서를 번역하여 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중국인들이 근대 교육학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이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田中敬이 편찬하고 周家樹가 번역한 《學校管理法》(<教育世界> 1~8호에 게재)이 있다. 그 후 <교육세계>에 湯本武比古가 저술하고 王國維가 번역한 《教授學》, 原亮三郎이 편찬하고 沈紘이 번역한 《內外教育小史》가 소개되었다. 1902년에는 木場貞長이 쓰고 陳毅가 번역한 《教育行政》이 소개되기도 하였다.⁸⁾

이상의 책들은 주로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이러한 교육학 저서를 접하면서 중국인들 스스로 중국의 실정에 맞는 교육학 저서를 내기 시작하였다. 초기 저서로 朱孔文이 편찬한 《教授法通論》(時中學社, 1903)이 있고, 王國維가 편찬한 《教育學》(教育世界史, 1905), 蔣維喬의 <學校管理法>(1909), 黃紹箕와 柳詒徵의 《중국교육사》(1910), 袁希洛이 편찬한 《教育行政數日談》(1912), 俞慶恩이 지은 《學校衛生講義》(上海江蘇教育會, 1915) 등이 있다.⁹⁾

1902년에는 上海支那번역회사에서 《翻譯世界》라는 책을 편집·출판하고, 이어 일본 早稻田대학의 각과 강의를 철학, 사회학, 사회주의, 종교, 정치

7) 聶長順, 앞의 논문, 14쪽.

8) 周子同, 《中國現代教育史》(福建: 福建教育出版社, 2007), 5쪽.

9) 周子同, 앞의 책, 5-6쪽.

학, 법률, 경제학과 교육사 등을 목차로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이후 사회정치제도의 전환, 교육정세의 발전에 따라 교육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서구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의 귀국과 서구 학자들의 방문 등을 통해서 활성화되었다. 당시 중국을 방문한 서구의 학자들로는 듀이(J. Dewy)를 비롯하여 몬로(P. Moroe), 맥켈(W. A. McCall) 등이 있었고, 이들의 직접 영향아래 중국 교육학이 발전하였다.

과거 중국의 교육학이 서구를 통한 직접적인 수용이라기보다 일본을 통한 수용이었는데, 이후로 중국이 일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서양교육을 접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더불어 당시 서구 교육의 변화는 중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방의 교육과학화 운동은 헤르바르트(Johann Friedrich Herbart)를 대표로 하는 사변교육학에 충격을 주었고 초보적으로나마 경험과학의 교육학이 건립되어 이른바 교육과학이라고 불렸다. 이와 동시에 교육학과 심리학 윤리학, 생리학, 사회학, 통계학 등의 학과에 영향을 주어 교육학자가 분리되고 이른바 교육과학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교육학에 대한 인식과 교육학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경우는 교육이란 단어가 'education'과 함께 《한영저년》 사전에 1911년에 최초로 등장하였다. 여기서 'education'은 '교양'과 '교육'의 동의어로 번역되었다. 한편, '교회'와 '교훈'은 동의어로서 좁은 의미의 교육 활동을 의미하는 'instruct'로 번역되었다. '교회'는 넓은 의미의 사회변화를 가리키는 'reformation', 'civilization'으로 번역된다. 오성철은 이러한 점을 제시하며 적어도 사전의 용례로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education' 개념이 결합되고 근대 이전에는 혼용되었던 '교육' 및 관련 개념들 중에서 한편으로는 '교회', '교훈' 개념이 구체적인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로 분화되어 가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개념이 사회 전반의 도덕적 변화를 가리키는 말로 분화되어 가는 개념사적 변화가 1897년에서 1911년 사이에 보다 넓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다고¹⁰⁾ 밝히고 있다.

10) 오성철, <유길준의 교육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37권 제1호(서울: 한

일본의 경우 '교육'이라는 말은 에도(江戶)시대 초기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 교화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었다. 에도 중기에 성인과는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아동'이 발견되고, 동시에 조직적인 방법에 대해 관심이 생기면서 종래의 '교화'로 표현할 수 없는 관념으로서 '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 1789년 幕府의 공문에 '교육'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막말유신기에 'education'이라는 개념과 만나 그 번역어로 정착하였다.¹¹⁾

3. 중국인을 통한 서양교육의 수용

중국에서의 서양교육은 외국인을 통한 전파도 있지만 중국인 스스로에 의한 전파도 있다. 이들은 주로 식자층들로서 서구나 일본의 유학을 통해 서구의 교육관련 책이나 자료를 접하면서 그 우수성을 인식하여 중국에 전파하였다. 중국에 서구의 교육이 자리 잡고 전통 교육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공식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된 1905년은 중국 교육사에서 중요하다. 서양교육의 중국 전파와 관련하여 중국의 인물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서구 교육의 초기 전래와 그에 부응하는 인물이다. 비교적 먼 과거에서 찾는다면 方以智(1611-1671)같은 인물을 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청년 시절을 마감하는 주저 《物理小識》의 <자서>에서 서학의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만력 연간에 멀리서 서학이 들어왔다. 그것은 質測에 있어서는 세밀하지만 通幾를 말하는 데에는 졸렬하다. 그러나 재주 있는 선비가 그들이 말하는 바를 더욱 세밀히 살펴볼 때, 그들의 질측도 역시 완비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의 유자들은 단지 宰理를 지키는 데 만족하고 있을 따름이다. 聖人は 신명에 달하는 이치와 만물의 실상을 기술하는 원리를

국교육사학회, 2015), 140쪽.

11) 오성철, 앞의 논문, 142쪽.

모두 《역》에 간직해 두었다.’¹²⁾

명말청초를 살았던 방이지의 자세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顏元(1635-1704) 등의 교육관과 사뭇 다르다. 안원의 경우는 중국적 방법과 내용으로 당시 주류 학문인 성리학의 문제점과 무능함을 타파하고 이를 위해 실천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에 맞춰 실용과 과학기술 등을 강조한 학제를 만들기도 하였다.¹³⁾ 반면에, 방이지는 서구의 것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러한 자세는 이후 중국에서 전개될 중체서용적인 사고의 선구가 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서학은 당시에 주로 선교사들에 의해 중국에 전해진 지식 전반을 가리킨다.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문, 역법, 지리, 수학 등 총체적인 학문 전체가 포함된다.¹⁴⁾

2단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중국의 부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서양의 교육을 수용하려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의 학문과 기술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사람들로서 양무파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1840년 이후 2차에 걸친 아편전쟁을 계기로 서구 열강의 중국 침략, 대내적으로는 태평천국의 난 등으로 나타난 내분 등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아편 전쟁 후 서양자본주의 침략은 중국 내 서양문화와 교육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많은 지식인들은 개방의 필요성과 이들 침략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그중 양무파들은 自強求富를 위해 중학을 체로 서학을 용으로 삼을 것을 주장(中學爲本, 西學爲用)하며 양무학당을 세웠

12) 이용주, 《동아시아 근대사상론》(서울: 이학사, 2015), 73쪽 방이지의 경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명말청초에 종교로서의 서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으로서의 서학이 중국 지식인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그들의 세계 인식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될 것이다. 서학은 기예적인 지식, 정량적인 지식의 탐구에 뛰어나다고 보는 인식이 당시 선진적 지식인 사이에 뿌리내린 상식적인 견해였다면 양정군과 같이 자연과학적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서학의 세계관에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낸 지식인들도 있었다.

13) 김덕삼·이경자, <실천의 측면에서 본 顏元과 陶行知의 교육사상>, 《儒教思想文化研究》 66집(서울: 韓國儒敎學會, 2016), 331-332쪽.

14) 이용주, 앞의 책, 64쪽.

다. 당시 개화파들은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군사 기술과 과학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적아래 양무운동을 추진했다. 양무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奕欣(1832-1898), 曾國藩(1811-1872), 李鴻章(1823-1901), 左宗棠(1812-1885), 張之洞(1837-1909)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봉건지주계급 출신으로 봉건전통의 영향 아래 성장하였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張之洞은 《권학편》에서 신교육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도 ‘中學僞本, 西學爲用’을 주장하고 더불어 중학, 서학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국의 학문은 고대를 논하는 것은 필요치 않지만, 치용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서양의 학문도 구별이 필요한데, 서양의 예술이 필요치 않다면, 서양의 정치는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의 중체서용론은 초기 교육취지의 틀로 청의 전성기에서 멸망할 때까지 영향을 주었다.¹⁵⁾ 張之洞의 《권학편》에 주로 강조된 양무교육사조의 기본 원칙인 ‘중체서용’은 중국의 교육근대화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외세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양무파는 교육에 필요한 신식학당들을 설립했는데 王建軍은 이들의 노력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외국어학당의 설립이다. 예를 들면 京師同文館, 上海廣方言館, 廣州同文館 등이다. 여기서 1862년에 북경에 세운 京師同文館은 중국 근대교육사상 최초의 신식 학교로 중국의 신학제가 적용되었다. 두 번째는 기술학당의 설립이다. 예를 들면 福州船政學堂, 上海電報學堂, 天津西醫學堂 등이다. 이 가운데 福州船政學堂은 근대 최초로 설립된 조선기술과 해군인재를 전문적으로 배양하는 학교이다. 세 번째는 軍事學堂의 설립이다. 예를 들면 天津水師學堂, 天津武備學堂, 廣州魚雷學堂 등이다.¹⁶⁾

당시 외국어학당은 서양 언어를 배워 이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기술학당 역시 위의 목적 외에 중국 내부의 변화를 위해 설립하였음을

15) 周子同, 앞의 책, 14쪽.

16) 王建軍, 《中國近代教科書發展研究》(廣東: 廣東教育出版社, 1996), 19쪽.

알 수 있다. 세 번째 군사학당도 이들의 중국 진출에 대한 방어책이었다. 이러한 학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서양 세력의 중국 진출에 대한 방어책 및 사회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이들의 필요에서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上海南洋公學中の 사범학교는 중국 근대사범교육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1901년에 사학가 羅振玉, 王國維를 중심으로 중국 상해에서 중국 근대 최초의 교육잡지인 <教育世界>를 창간한 것도 시대 상황에 맞는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양무파들의 주장이 중국 내부에서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전통교육에 있어 과거제도에 대한 비판, 신식학교의 설립 등 중국이 교육방면에서 근대화로 전환하는데 기여를 한 점은 중국의 교육 근대화를 논함에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양무시기의 유학교육은 전통교육에 대한 대변혁이고, 양무교육으로 근대자본주의에 대한 공업생산기술, 자연과학지식 등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는 양무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서양의 문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성향을 가지면서, 과거제도 폐지 전후에 활동한 인물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양무론자의 성향과 비슷하거나 그 영향을 받은 인물도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한 주요 인물과는 약간씩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양무론자들은 본말론, 도기론을 통해서 서양 문화 수용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수용의 범위를 군사 기술이나 기계, 선박 등 서양문화의 용에만 한정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鄭觀應(1842-1921)의 도기론은 전혀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의 서양 문화 인식 및 중서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심정적 추측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문화의 구조와 그들의 학문 체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와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관응의 문화 체용론은 중체 서용론이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⁷⁾

정관응의 인식에 따르면 중국이 필요로 하는 서양문화는 단순히 과학 기술 중의 일부분이 아니라 서학(서양 문화) 전반이다. 그 서학은 체와 용을 모두

17) 이용주, 앞의 책, 198쪽.

포괄하기 때문에 기계, 기술, 군사 차원에서 한정하여 서양 문화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관응은 그의 대표작인 《盛世危言》의 <도기>, <서학>에서 중국이 수용해야 할 '서학(단순히 西器가 아니라)'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논리를 구축하려 한다. 정관응은 새로운 학문의 체계화를 시도한다.¹⁸⁾ 정관응은 학교를 국가 근대화의 거대한 역할로부터 인식하고 그는 "서구인은 용의 본을 세우고 체, 용을 모두 구비하였다. 그는 서원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의회에서 정치를 논하고 군민이 일체가 되고 상하가 마음을 같이하는 것은 體이며 練兵, 기계제조, 철도, 전선 등은 그 용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적극적으로 서구의 교육제도를 소개하면서 그것을 근대 중국이 신학 설치에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⁹⁾

張百熙(1847-1907)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도광 29년인 1904에 <奏定學堂章程>에서 학문의 중지를 밝혔는데, 어떠한 학당을 막론하고 忠孝를 근본으로 하고, 중국 經史의 학문을 기초로 하여 서구의 지식을 배우며, 기능을 단련할 것을 밝혔다. 中學爲本 西學爲用이란 것이 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를 맞이하여 중국의 사상계에는 여전히 중국의 전통적 학문이 있었고 서양의 학문은 주로 일본의 학문을 통해 수용되었다. 嚴復(1854-1921)처럼 영어 문헌을 직접 알고 서양 학문을 공부한 사람은 오히려 소수에 해당했고, 일본을 경유하여 서양사상을 이해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²⁰⁾ 嚴復이 번역하여 소개한 서양의 서적도 그 목적은 문명 중국의 발전에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서양의 학습을 강조했던 이른바 신파에 속하는 지식인으로 중국의 학문과 서양의 학문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이들이 일본 번역서를 활용한 것은 일본어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양의 근대 학문은 중국의 지식인을 통해 전개되었는데 이는 결국 중국의 근대화 중국의 국력을 위한 대의적 의미에서의 수용이었다.

18) 이용주, 앞의 책, 198쪽.

19) 김경식, 《중국교육전개사》(서울: 문음사, 2006), 742쪽.

20) 양일모, 《엔푸(嚴復):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파주: 태학사, 2007), 212쪽.

嚴復의 경우는 중국 문화를 體, 서양문화를 用이라고 말하는 ‘중체서용’이 마치 ‘牛體馬用’처럼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야유한다. 고전 중국 철학 전통 안에서조차 체용은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었으며 그 모호한 개념을 현대 문화를 해석하는 범주로 이용할 때 더욱 큰 의미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양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청 왕조가 무너짐에 따라 체용 개념을 이용하여 동서 문화를 규정하려는 논의가 사라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²¹⁾

일본 문화를 중국에 전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본 문헌을 통한 서양 학습의 선두에 선 것은 梁啓超(1873-1928)였다. 그는 <신민총보>의 ‘학술의 세력이 세계를 좌우함을 논함’이라는 글에서 근대 서양 문명을 형성한 8대 사상을 소개했다. 일본에 와 있던 당시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서양 사상을 기반으로 중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고자 하였다.²²⁾ 그는 康有爲에게서 陸王心學과 西學을 배우고 公羊學을 익혔다.

일본 유학을 한 陳獨秀(1879-1942)와 그가 만든 잡지 《신청년》에 참가한 지식인들은 중국의 전통 교육을 비판하면서 서구적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앞서 지식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태도를 취하지만, 이들이 가진 근대 서구 문화에 대한 긍정적 신호는 전통의 비판과 계승이라는 균형적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

이 시기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유럽에서 유학한 중국인들도 나타나서 중국 교육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한 명이 蔡元培(1868-1940)이다. 그는 1889년에 進士에 합격했지만, 1898년의 무술정변 이후 교육을 기초로 한 중국 발전을 도모하려고 결심한 뒤, 교육 분야에 매진하였다. 1902년 중국 교육회를 조직하고, 1907년에 독일에 유학하여 1912년 중화민국 건국시 초대 교육청장(교육부 장관), 1916년 北京大 校長을 역임하였다. 그가 北京大에 있을 때 陳獨秀와 胡適 등을 초빙하여 자유로운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21) 이용주, 앞의 책, 188쪽.

22) 양일모, 앞의 책, 212쪽.

4. 외국인을 통한 서양교육의 수용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서구의 영향이 컸고, 심지어 근대에 벌어진 동양의 전쟁도 큰 틀에서 보면 서양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다.²³⁾ 중국에서 외국인을 통한 서양교육은 과거제도가 폐기된 1905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제 1단계는 비교적 먼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구문물의 중국전파, 서구문화를 중국에 소개한 인물로 떠오르는 이가 바로 마테오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이다.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일어난 구교와 신교의 대립으로 인해 많은 폐해를 초래했던 종교전쟁은 각 종교 세력을 아시아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은 이들에게서 서양 문화를 접하고 이를 통해 전통과 근대라는 새로운 구분을 낳게 하였다. 마테오리치가 중국에 서양을 소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양에 중국을 소개한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향으로 마테오리치 이후에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과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교류를 맺길 희망하였고, 이와 더불어 많은 선교사가 중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1685년 3월에 중국에 파견할 6명의 신부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3년에 걸쳐 5명의 신부가 북경에 도착하였다. 마테오리치가 전한 유럽의 과학기술은 중국인들에게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徐光啓(1562-1633)의 경우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존경하여, 마테오리치와 가까이 지내고, 1603년에 가톨릭 세례를 받고, 마테오리치와 가까이 지내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웠다. 서광계는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관련되어 유클리드(Euclid) 《幾何原本》 전6권을 번역하여 중국에 소개하였고, 서방의 지식과 고대 중국의 천문

23) 이언모리스, 최파일 역,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파주: 글항아리, 2013), 725쪽.

역법을 이용하여 《崇禎曆書》를 편찬하였다. 유럽의 과학기술은 당시 중국에 계도 매우 필요한 지식이었다.²⁴⁾

제 2단계는 외국인 특히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중국에 교육이 전파된 경우이다. 앞서 1단계의 경우처럼 특정한 개인보다 중국에서 활동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선교사가 중국에 서양의 교육을 전파한 것은 먼저 선교사를 양성할 목적의 학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리슨(Morrison, Robert)과 미린(Miline, william)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들은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815년에 英華書院을 설립하였다. 이어서 18864년에 山東 登州에 文會館을 설립한 미국인 선교사 켈빈(Calvin W. Mateer) 등을 들 수 있다.²⁵⁾

미국 장로회 선교사인 켈빈은 <기독교회와 교육의 관계>라는 글을 발표하여, 교회와 교육은 별개의 것이지만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교육은 신뢰할만한 현지 선교사를 배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은 서양문명과 과학 예술을 이용하여 중국의 인재를 배양하고, 상류 계급 사회에 진입하거나 교회의 토착화에 많은 기여를 하며, 교회교육에서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1877년에 중국에 있는 각 교파가 연합하여 구성한 학교교과서 위원회를 중화교육회

24) 중국은 수대에 만들어진 과거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며 국가 관리와 국가 행정의 시스템을 잘 갖추었고, 송대의 산업혁명으로 경제적으로 우수할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 중국은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전근대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가장 세련된 경제 중의 하나였다. 루소가 “불행하게도 중국은 과학의 결핍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중국은 유럽의 과학을 수용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2세기도 못되어 산업화된 근대를 맞이하였을 때 낙후된 경제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유럽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습득하고 수용하면서 몇 세기 지나지 않아 동양과 서양의 경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상의 마테오리치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 저자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김덕삼·최원혁·이경자, <동서양 문명 교류에서 본 '공감'>, 《중국과 중국학》 30호(경산: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6), 107-110쪽.

25) 이러한 목적과 과정 속에 1876년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 개신교에서 세운 학교는 347곳, 학생은 5,917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중국내 거주하는 선교사는 473명, 전체 Mission의 수는 29개, 중국 각지에 세워진 傳教基地는 91개에 이르렀다. 霍益萍, 《近代中國的高等教育》(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9), 172-173쪽에서 재인용,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Protestant Missionaries of China(shanghai, 1877)》(上海: 1878), 32, 486, 488쪽 참조.

로 바꾼 뒤, 단순하게 제작하여 사용하였던 교과서를 중국 각지에 있는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²⁶⁾

초기 교회대학의 교사는 주로 선교사들로서 이들은 비전문교육종사자들이었다. 물론 당시 유럽의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고학력자로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육전문가는 아니었기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직 교사의 중국 파견을 유도했다. 또한 현직 교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²⁷⁾ 이러한 선교사 가운데 중국의 교육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 테니(Tenney, Charles Daniel)는 天津中西學堂과 北洋大學에서 11년간 복무하였고, 퍼거슨(Ferguson, John Calvin)은 滙文書院과 南洋公學 설립에 깊이 관여하였다.²⁸⁾

선교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서양교육의 중국 전파에서 이들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학의 설립이다. 중국 대학은 19세기 중반에 세워진 교회대학을 필두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之江大學의 전신으로 1845년에 세워진 崇信學校, 聖約翰大學의 전신으로 1879년에 세워진 聖約翰書院, 金陵大學의 전신으로 1888년에 세워진 滙文書院, 1888년의 嶺南大學 등이 있다. 이들은 설립 당시부터 1952년에 시행된 院係조정 직전까지 중국 내에서는 우수한 대학이었다.²⁹⁾ 이러한 대학을 통해 중국의 지식인과 상류사회는 서구의 가치와 문화를 확대재생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2단계에서 진행되고,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3단계에서는 서구의 교육전문가들이 직접 중국에 영향을 주는 변화로 발전하였다.

제 3단계에서는 종교적 목적에서 확장되어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중국에 교육을 이용하여 접근한 외국인들이 주로 포함된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

26) 陳學恂, 《中國近代教育史教學參考資料》 下(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87), 103-104쪽.

27)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26년에는 교회대학 465명의 교사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가 70명에 이르렀다. 杰西·格·盧茨, 曾鉅生 譯, 《中國教會大學史》(浙江: 浙江教育出版社, 1988年), 181-182쪽.

28)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김덕삼, <중국 교회대학의 발전과 교육적 영향>, 《中國研究》 47권(서울: 韓國外國語大學 中國研究所, 2009), 309-326쪽.

29) 김덕삼, <중국 근·현대 대학 변화의 사상적 기초>, 《中國學論叢》 제30집(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0), 241쪽.

일본 외에도 다양한 국가가 중국에 서구의 교육을 소개하였다. 특히 독일 정부의 중국에 대한 교육정책은 중국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 심지어 영국인이 이를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독일인은 ‘德華學會’를 설립하고 중국을 연구하면서, 중국을 침략할 도구로서 교육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상하이에 德文醫學校를 세우고, 山東 靑島에서 체계적인 독일교육을 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 경영정책은 배척주의로 즉 타국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독일인의 종교, 사회, 工商에 집중하여 투자 건설하였다. 그 목적은 중국 학생으로 하여금 독일의 문화, 제도, 풍속, 습관, 인물과 물질문명에 젖어들게 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교육침략정책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영국정부도 이를 모방하여 20세기 초 Cambridge University, Oxford University도 대규모로 중국에 漢口대학을 세웠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1910년에 홍콩대학을 설립하였다.³⁰⁾

3단계에서는 교육학자인 듀이(J. Dewy)를 비롯하여 몬로(P. Moroe), 맥켈(W. A. McCall) 등이 직접적으로 교육이라는 학문을 통해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 듀이가 중국에 직접 오기 전에 이미 듀이의 제자들이 그의 교육 사상을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陶行知이다. 그리고 1919년에 일어난 5·4운동을 전후하여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구의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5. 맺음말: 수용의 의미

이상으로 중국에 서양교육을 전파하거나 중국이 서양교육을 수용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을 중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 인물을 시대별로 구분하고 시대에 따른 인물들의 공통된 성향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30) 蘇雲峰, 《中國新教育的萌芽與成長》(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52쪽.

고찰을 통해 나타난 근대 서양교육 수용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교육 수용의 과정의 정당성과 현재까지 진행형인 서구문화의 확대재생산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시스템과 내용을 송두리째 바꾼 혁명과 같은 변화는 서구의 침략과 중국 내부의 혼란 속에 진행되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이민족이 침입하여 다스렸던 원, 금의 시대에도 약 300년 동안 만주족이 통치했던 청대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이다. 중국의 근대교육은 서양교육을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핵심은 중국 근대교육의 가치와 시비를 추적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성찰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하여 뒤로 미루고,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에 주력하였다. 원인을 따지고 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치판단보다 사실판단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서구적 시각과 프레임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츰 이러한 것에 회의를 갖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³¹⁾

중국은 공자 이후 청말까지 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경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양의 중국 진출이후 사건으로 굳이 말하자면 아편전쟁을 전후로 하여 신학제, 근대학문이라는 이름하에 교육은 새롭게 재조정되었다. 여기서 신학제와 근대학문이란 서양식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서양교육을 수용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후 중국인들은 자국의 문화 전통에 대해 이중적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전통에 대한 막연한 우월감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를 앞세우고 밀려들어오는 서양 제국 열강의 힘에 대한 선망과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³²⁾ 특히 중국은 1842년 南京條約을 통해 5개 항구를 개방하면서 홍콩, 상해 등을 통해 선교사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세력이 들어오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많은 면에서 변화

31) 관련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덕삼·이경자, <근대 서양교육 전파가 중국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연구논총》(서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317-318쪽.

32) 이용주, 앞의 책, 188쪽.

가 일어났다. 교육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동안 경전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서양 중심 교육체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중국인에 의한 서양교육의 수용에서 서구의 영향보다 일본의 영향이 컸다는 점이다. 일본을 통해 서양을 학습하는 자들은 주로 정치적 망명객과 젊은 유학생들로 이들은 메이지유신 때 일본에 소개된 서양 학문에 매료되었다. 이들의 영향으로 중국에 근대 학교제도를 수립할 때, 일본의 학제를 모델로 삼았다. '서방의 충격'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이었고 특히 교육개혁은 사실상 '일본의 충격'으로 이루어졌다. <奏定學堂章程>의 '奏定初等小學堂章程'은 일본에서 1872년에 발효된 <학제>의 부속 문서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또한 주정학당장정의 교육체계에서는 초등교육 9년(초등소학 4년, 고등소학 5년), 중등 교육 5년, 고등교육 6-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 학교 교육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청나라 정부가 일본을 모방해 교육 근대화를 추진한 것의 계기가 된 것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이었다. 청나라 정부가 메이지 정부의 교육정책을 모델로 삼은 것은 일본이 근대국가로 도약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 근대적 학교교육의 비약적 발전과 국민교육의 보급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³⁾

셋째, 외국인에 의한 서양교육의 수용에서 선교사의 영향이 컸고, 이들은 다양한 사람과 목적으로 구성되어 중국의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이 최초로 중국 근대교육 개혁에 관심을 가진 것은 교회를 통해서이다. 그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서양의 과학기술 의료 및 문화를 보급하였다. 외국정부는 중국 교육에 관심을 갖고 1900년 이후 정치 경제와 문화정복의 기회를 얻었다. 일본은 교회학교의 성공을 거울삼아 중국에서의 교육을 발전시키려고 정치, 경제의 발전과 영토를 획득하려는 야심을 품었다. 독일, 영국, 미국 각국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지역적으로 일본은 동북에서 독일은 산둥에서 영국은 산서에서

33) 소노다 시게토·신보 아쓰코, 《중국의 교육》(파주: 한울아카데미, 2017), 24쪽

미국은 북경을 중심으로), 교회와 상인 등의 힘을 빌려 중국에서 문화와 상업 세력 범주 안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였다.³⁴⁾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많은 권리를 얻은 선교사들은 교회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립하였다. 교회학교는 주로 다섯 개의 통상항구와 홍콩, 澳門에 교회부설로 설립하였고, 점차 고등교육, 의학교육, 여자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외형적으로는 초등교육으로 시작해서 고등교육으로 확대하였다. 학교 설립 목적도 초기에는 선교를 수단으로 빈민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하였고, 교육보다는 양육차원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역할에 주력하였다. 이후 정치, 경제와 과학, 의학 등 세속적 목적에 이르기까지, 빈곤자제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관리 자제를 교육하는 것까지, 초등교육에서 대학전문교육에 이르기까지, 남자교육에서 여자교육까지 확장되었다.³⁵⁾ 이러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로 인해 중국의 교육방법, 교육과정 등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근대라는 의미에서 '교육'의 수용은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1902년 중국 근대 최초의 체계적인 <壬寅學制>가 탄생하고, 1904년 청정부가 반포한 <癸卯學制>가 더불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1905년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중국에 근대교육은 확산되었다. 이상에서 알아 본 중국 근대 교육의 변화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근대 교육의 수용은 救國의 차원에서 필요하였다. 이는 외세의 도전에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초기 근대교육이란 선박, 대포 등의 제조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육해군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교 및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福建船政學堂, 天津水師學堂, 天津武備學堂, 山西武備學堂, 湖北武備學堂 등이 생겼다.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862년 북경에 京師同文館을 세워 번역인재 및 군비교육을 하였다. 1863년에 세워진 上海廣方言館도 경사동문관의 성격과 목적이 비슷하였다. 이후 湖北自強學堂을 상해와 광둥에 세웠다.

34) 蘇雲峰, 앞의 책, 53쪽

35) 이경자, <청말 선교사들의 교육활동>, 《중국학논총》(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5), 218쪽

둘째, 서구 교육학이 중국의 지식인, 선교사 등을 통해 일본과 미국을 통해 소개되고 이후 중국의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양교육이 중국에 수용되기 전과 이후에 중국 사회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전에는 교육의 목적이 인격도야와 과거합격이었다면 이후에는 자아실현과 학문 탐구로 바뀌었고, 암기와 사유의 교육 방식이 실험과 응용의 교육 방식으로 바뀌었다.³⁶⁾ 이는 사회적으로 유가사상과 농업 중심의 사회를 과학과 민주 사상과 다양한 직종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시켰다.

앞서 지적했듯이 어떤 것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검증과 성찰이 오늘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G2로 올라선 중국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다.

< 參考文獻 >

- 杰西·格·盧茨, 曾鉅生 譯(1988), 《中國教會大學史》, 浙江: 浙江教育出版社.
 高時良(1993), 《中國教育史綱》,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高時良(1994), 《中國教會學校史》,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顧衛民(1996), 《基督教與中國近代社會》,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顧長聲(1981), 《傳教士與近代中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霍益萍(1999), 《近代中國的高等教育》,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김경식(2006), 《중국교육전개사》, 서울: 문음사.
 김덕삼(2009), <중국 교회대학의 발전과 교육적 영향>, 《中國研究》 47권, 서울: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研究所.
 김덕삼(2010), <중국 근·현대 대학 변화의 사상적 기초>, 《中國學論叢》 제30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36) 김덕삼·이경자, <근대 서양교육 전파가 중국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연구논총》(서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305-315쪽, 표2와 표4 참조.

- 김덕삼·이경자(2014), <근대 서양교육 전파가 중국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연구논총》 40집, 201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덕삼·이경자(2016), <실천의 측면에서 본 顏元과 陶行知의 교육사상>, 《儒教思想文化研究》 66집.
- 김덕삼·최원혁·이경자(2016), <동서양 문명 교류에서 본 '공감'>, 《중국과 중국학》 30호, 경산: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 金德三·李庚子(2017), <失去의近代性與傳統的重建: 以中國近代教育的變化爲中心>, 《中國研究》 72卷, 고려대학교 중국연구소.
- 杜成憲, 崔運武, 王倫信(1998), 《中國教育史學九十年》,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聶長順(2009), <“教育”의近代化>, 《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期, 武漢: 湖北大學.
- 소노다 시게토·신보 아쓰코(2017), 《중국의 교육》, 파주: 한울아카데미.
- 蘇雲峰(2007), 《中國新教育的萌芽與成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楊伯峻(1995年版),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 양일모(2007), 《옌푸(嚴復):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 파주: 태학사.
- 오성철(2015), <유길준의 교육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37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 王建軍(1996), 《中國近代教科書發展研究》, 廣東: 廣東教育出版社.
- 이경자(2015), <청말 선교사들의 교육활동>, 《중국학논총》,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 이언모리스, 최파일 역(2013),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파주: 글항아리.
- 이용주(2015), 《동아시아 근대사상론》, 서울: 이학사.
- 周子同(2007), 《中國現代教育史》, 福建教育出版社.
- 陳學恂(1987), 《中國近代教育史教學參考資料》 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텐젠귀 저, 송홍령 옮김(2015), 《중국교육, 세계를 겨냥하다》, 서울: 타래.

< Abstract >

Acceptance of Modern Western Education in China

Lee, Kyung-ja

Modern times are an important time to observe changes in tradition and modern tim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system and content of education are in a period of rapid change unlike the previous era in modern times. Among the changes of modern education in China, the acceptance of Western education in particular proceeded with acceptance of education thought and system of Western and Japanese. This study focuses on how China accepted Western education until 1905 when the old system was abolished. To that end, we approached from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acceptance process of the name of 'education' symbolizing modernity is examined. The meaning of education used by Mencius for the first time and Education have different meanings.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how China accepted Western education in China by keeping track of what is used in the meaning of Education. Second, the process of accepting Western education into China was examined with three levels, mainly for Chinese and foreigners. In the early days of acceptance, In the case of Chinese, the Chinese people began to take education through exchanges and exchanges. In the case of foreigners, foreigners spread Western education to China as a part of preaching through missionaries. In the last stage, it was developed according to each situation. In the case of Chinese people, Western education is directly accepted beyond Japan. In the case of foreigners, professional education led China's acceptance of Western education by affecting China Developed. Over 100 years since 1905, the traditional education system in China or the sprouting of the Chinese educational system is hard to find out. Education and the culture accompanying it over 1000 years have been extracted, and heterogeneous educational systems

have been implanted there and maintained until now. This change of education is not only limited to education system but also to the ideology and culture that has maintained Chinese society for a long time, and it changes to customs and tradition to support it, and it is extended to self - denial including disconnection from tradition. That is why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Key words: tradition education, modern education, Western education, Chinese education, Chinese educational system.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10. 31.	2017. 11. 28.	2017. 11. 29.	2017. 12. 10.	2017. 12. 31.